

SPECIAL

최적화한 안식처의 완성 테라퓨틱 인테리어

우리 시대의 집은 셀프케어를 위한 안식처로서 오직 나를 위한 작은 사치와 치유의 시간을 허락한다. 부드러운 곡선, 은은한 향기, 내추럴한 재질과 온화한 색감 등 사람의 마음을 차분하게 어루만져 주는 디자인은 언제나 사려 깊고 정직하다. 이달 <까사리빙>에서는 디자인의 치유 기능에 집중한다. 심신을 진정시키는 감성적 역할뿐 아니라 개인의 성향과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해 최적화된 환경을 이뤄주는 스마트한 기능까지 포괄한 테라퓨틱 인테리어를 만나보자.

기획 <까사리빙> 편집부

CASE STUDY

힐링 홈을 위한 국내외 사례
Therapeutic Homes

INTERVIEW

라이프스타일 리더 9인의 치유를 위한 루틴
Healing Objects

KEYWORD

북유럽 라이프스타일 속 웰니스
Visions in Scandinavian Design

FOCUS

일상의 중심이 된 공간
Kitchen Therapy

SPECIAL

어스 톤과 자연의 물성, 수공예 디자인의 따스함

“우리의 삶은 이미 너무 분주하고 많은 이미지로 지쳐 있어요. 예술작품과 디자인은 오히려 복잡하지 않은 게 좋아요.” 요즘 마음이 가는 것들을 묻자 헬레나 박 대표가 말한다. 평소 독창적이면서도 본질에 충실한 디자인을 추구하는 그녀다운 명쾌함이다. 그녀는 일상의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감정을 차단하기 위한 답은 좋은 공간에 머무는 것이라 생각한다. 인간은 둘러싼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간을 경험하면 그 자체로 힐링을 얻는다. 처음 공간이 완성되었을 때는 오픈하우스 1728에도 에이치픽스에서 다루는 여러 브랜드들이 세팅되었다. 그러나 캐릭터가 강한 디자인끼리 서로 부딪히는 모습을 보며, 집에 필요한 따뜻함과 온화함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 결국 공간을 평온한 무드로 완성한 것은 덴마크 브랜드 볼리아(Bolia)다. 그녀가 실제 자신의 집에서 사용하면서 만족도가 높았던 브랜드이기도 하다. 어스 톤과 자연 소재, 수공예를 바탕으로 사려 깊고 따스한 디자인을 선보이는 볼리아. 이들의 가구에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담겼다. 세대에 걸쳐 물려줄 수 있도록 고안된 가구의 디자인은 모든 제작 공정이 환경적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지며 오직 오더 메이드 베이스로 완성된다. 감각이 날카롭게 서 있는 상업 공간에서보다 감성적으로 편안한 상태가 되는 실주거 공간에서 그 가치가 더 드러난다. 앞으로 오픈하우스 1728은 그 이외의 장소성이 주는 활력을 원동력으로 브랜드 컬래버레이션, 게스트 스테이 등의 장소로 운영될 예정이다. 비주얼 너머의 디자인적 가치를 이야기하는 ‘하우스 오브 볼리아’는 그 새로운 가능성의 시작이다.



1



2



3

- 1 젖은 장지 위에 자연스럽게 번지고 흐려진 형상을 표현한 김소연의 '576개의 사각형 시리즈'(2021년)와 볼리아의 모듈 타입 소파, 데이베드, 암체어와 커피 테이블이 있는 5층.
- 2 하우스 오브 볼리아는 대량 생산되는 것들과 대비되는, 미묘하고 촉각적인 디테일을 통해 고요한 울림을 전한다.
- 3 다락을 없애자 모습이 드러난 비둘기창. 가족이 살던 건물의 옛 모습을 추억케 하는 모티프다. 오크 목재로 만들었으며 데스크를 겸한 선반 시스템은 볼리아의 '스트랩 콤비네이션 02'.